

안녕하십니까.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제 35 대 중앙동아리연합회 동아리연합회장 마지연입니다.

그 어떠한 말을 드리기에 앞서 최근 발생한 상황들로 여러분께 혼란스러움과 불편함을 야기하게 되어 중앙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회의 대표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저희 중앙동아리연합회는 1 월 1 일에 정식 출범하여 약 4 개월의 임기가 지난 지금까지 쉽 없이 달려왔습니다.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많은 것들이 달라졌고 계획했던 많은 것들이 취소되었고 하루하루 예상할 수 없는 나날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집행부원들과 오랜 기간 고생하며 기획했던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무산이 되는 경험을 수도 없이 겪어왔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러한 상황임에도 할 수 있는 것들과 학생 자치기구로서 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 무엇하나 놓치지 않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가장 먼저 동아리 방이 모여있는 학생회관 환경 개선을 진행했습니다. 노후화된 학생회관 엘리베이터 교체, 소극장의 다목적 세미나실화, 동아리연합회실 환경 개선, 동아리 방 확충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문을 여닫을 때마다 소음이 심하고, 여닫는 과정에서 반대편이 보이지 않아 사고의 위험이 컸던 층별 방화문 공사 시공을 5 월 중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존 3 월에 예정되어 있었던 동아리 대축제를 진행할 수 없게 되어 오프라인 홍보가 불가능해짐에 따라 온라인 홍보 방식을 통해 동아리 소개집 및 분과별 동아리 소개 영상, 신입부원 모집 포스터뿐만 아니라 중앙동아리연합회 소개 영상을 업로드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동아리연합회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여 더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한 소통과 공감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원활한 동아리 활동을 위하여 기본지원금 확대, 코로나 19 지원금 및 선물 지급, 특별지원금 인상 등에 대한 협의 또한 지속적으로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저희 35 대 중앙동아리연합회는 동아리 활동에 있어 더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끊임 없이 노력해왔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저 혼자 아닌 저희 중앙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 모두와 노력한 일입니다. 그러나 기획한 행사들이 반복적으로 취소되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저는, 집행부원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대표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저의 부족한 자질로 인해 저를 믿었던 이들 그리고 이 단체에 봉사하기 위해 온 이들에게 많은 상처와 고통을 주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집행부원들과 분과장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 분들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서로 간의 성격, 업무 스타일 등의 마찰 등을 떠나 대표자로서 이와 같은 갈등을 봉합하지 못한 것은 제 잘못이며 이에 대한 어떠한 질책도 달게 받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운영위원회 회의를

소집하여 내부적으로 안정화를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소집 무산 공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앙동아리연합회 전체 구성원 회의를 개최하여 모든 중앙동아리 회원분들께 정확한 상황보고의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대표자로서 저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책임감 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 가고 이뤄가는 것이 저를 믿고 지지해주신 학우 분들을 위한 제가 생각하는 대표자로서 지녀야 할 책임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나친 책임감으로 인해 조직원들에게 고통을 주는 대표가 아닌 구성원들을 신뢰하고 더욱 헌신하며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갖추겠습니다. 진정으로 능력을 갖추고 구성원들과 협력하는 대표가 되겠습니다.

작년 11 월, 학생 대표자 선거 때 여러분이 저를 믿고 지지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비로소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과 공감하여 함께 만들어간 약속들을 하나하나 지켜가고 있습니다. 1 학기는, 갑작스러운 코로나 유행 등 여러 이유로 공약들을 이행해오기 힘든 상황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수십 개의 동아리 대표자분들을 한 분 한 분 직접 찾아뵙고 노트 한 권이 부족할 정도의 수많은 피드백을 받으면서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낸 공약들과 제가 감히 여러분께 드렸던 약속들, 다짐들을 함께 실현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 때의 초심 잃지 않고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여러분과 소통하며 함께 고민해온 그 결실을 중앙동아리연합회 구성원분들 모두와 함께 맺고 싶습니다.

말로만 약속 드리는 것이 아닌 아래와 같은 3 개의 원칙을 기반으로 상호 협의 하에 내부 규칙을 마련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1. 정해진 정기회의 일정에 맞춰 어떠한 상황에서도 집행위원회 회의 및 운영위원회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어떠한 안건이라도 회의의 모든 참여인원의 의견을 필수적으로 수렴하고, 충분한 논의 진행 후 올바른 절차로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3. 상호 공유할 수 있는 모든 사항들을 내용과 형식이 갖춰진 문서로 공유하겠습니다.

모든 규칙들은 집행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상호 협의를 거쳐 수정 및 보완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장치들을 통해 중앙동아리연합회 구성원분들 모두가 활동함에 있어 불편함을 느끼시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때문에 불쾌감을 느끼셨을 모든 34 대 중앙동아리연합회 집행부원분들께도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매년 학생회의 구성은 새롭게 진행되며, 34 대 중앙동아리연합회 집행부원분들은 올해 각자 저마다의 이유와 환경으로 인해, 스스로의 판단 하에 더 이상 중앙동아리연합회 활동을 이어가지 않았을 뿐입니다. 또한 34 대 동아리연합회장과 부회장에게 필요한 자료들을 인수인계 받았으며 그 이후에도 업무에 필요한 자료 및 조언을 구해왔습니다. 34 대 중앙동아리연합회에 대해서는 어떠한 오해도 없으셨으면 하며 34 대 집행부원 분들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이번 2 학기에는 다양한 정책과, 다채로운 행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1 학기에 예정된 것들을 못했던 만큼 더 많이 준비하고 고민하여 다양하고 퀄리티 있는 행사들로 찾아뵙겠습니다. 또한, 1 학기 동안 원활한 동아리 활동을 못하신 분들을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학생회는 학우분들이 계시기에 존재합니다. 학생회 내부의 일이 여러분의 원활한 중앙동아리 활동 및 문제 해결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면 안되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오지 않도록 뼈를 깎는 심경으로 내부 상황을 재정비하고 이를 발판 삼아 학우 분들과 더 공감하고, 더 나아갈 수 있는 중앙동아리연합회, 그리고 중앙동아리연합회장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제 35 대 중앙동아리연합회장 마지연 올림